

annual report 2008  
사업보고서



# Contents

- 1 감사의 글
-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 4 2008 사업지역
- 5 방북자 및 물자지원 현황
- 6 2008 활동일지
- 10 우리민족사업소개
- 12 농업·축산지원사업
- 14 지자체공동사업
- 16 제약공장지원사업
- 18 병원현대화사업
- 20 취약계층지원사업
- 22 IT 교육사업
- 23 긴급구호사업 / 교육지원사업 / 법률지원사업
- 24 정책연구사업
- 26 고려인지원사업
- 28 광주전남 지부사업
- 29 부산경남 지부사업
- 30 2008 사업결산
- 31 함께하는 사람들
- 32 후원안내

## 감사의 글

오는 6월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이 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활동과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재의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합,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가 고자 하는 13년 전 창립 당시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변하지 않을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을 돌아보면 외부의 조건을 핑계로 우리의 가치를 실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회원과 후원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2008년 사업 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어떤 활동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 지에 대한 솔직한 기록입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화자찬' 식의 의례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잘 하지 못했거나 응당 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읽혀 지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쥐의 해가 가고 우직스런 소의 해가 왔습니다. 저희는 올 한해가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넉넉한 소의 큰 걸음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뽕 풀어주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했던가요? 아마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소걸음처럼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소가 일보(一步) 일보를 더하여 천리를 가듯이 꾸준하고 험 없이 앞길을 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평화

의 길

조금 멀지도 모릅니다.

길이 막혀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가기에

오늘도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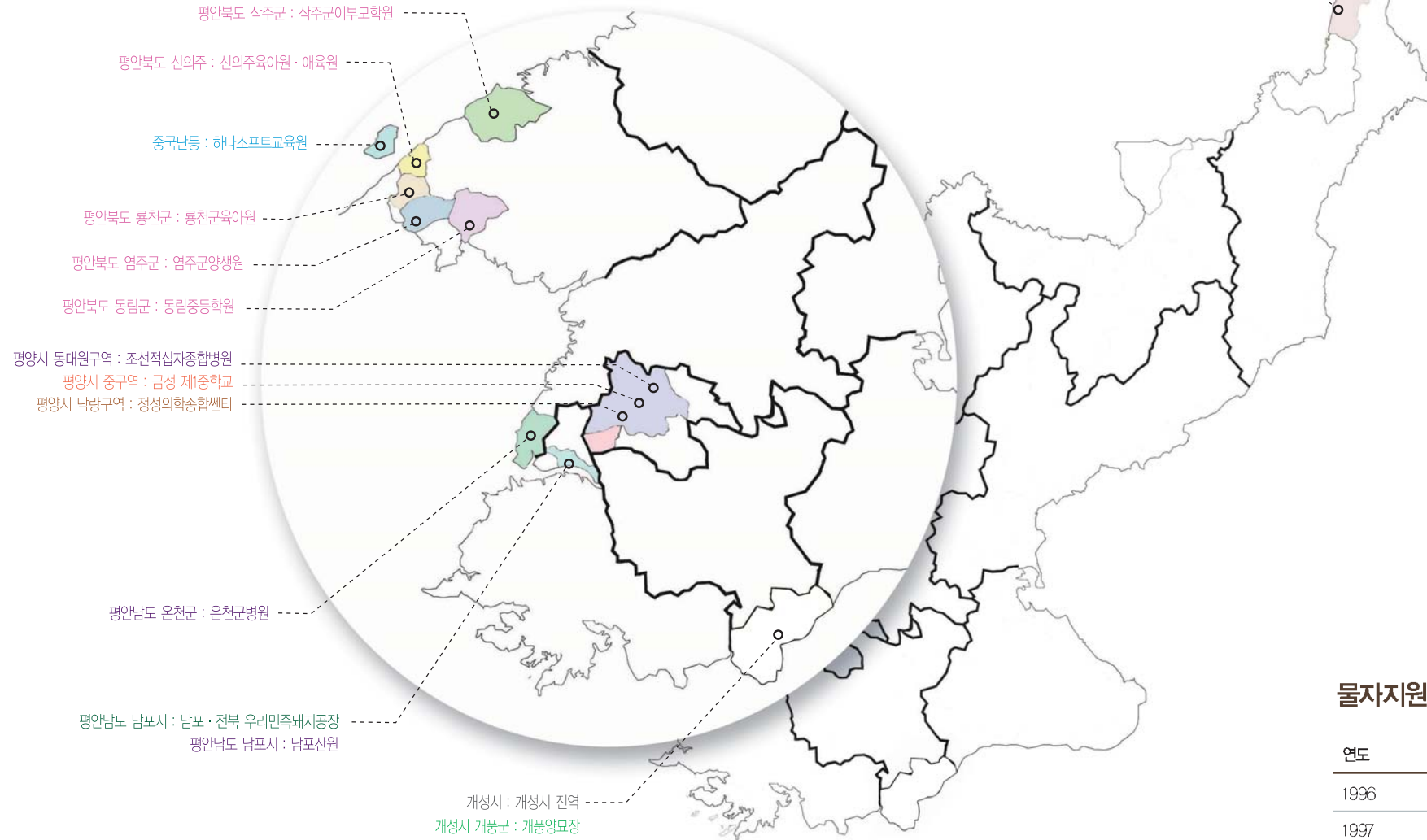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 온성읍유치원 / 남양노동자구유치원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사업
- 교육지원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 볼고그라드 : 한글학교, 고려인축제
- 슬로두시노 : 제 1시설 영농단지
- 블스츠키시 : 한글학교
- 레닌스키 : 제 2시설 영농단지



북한방문 현황

연도	방문횟수	연인원	비고
1998	2	4명	평양 1회: 2명 / 신의주 1회: 2명
1999	8	29명	평양 2회 총 13명 / 남포 4회 총 10명 / 신의주 2회: 6명
2000	19	79명	평양 8회: 48명 / 남포 8회: 20명 / 신의주 3회: 11명
2001	20	106명	평양 14회: 85명 / 남포 5회: 17명 / 신의주 1회: 4명
2002	24	212명	평양 20회: 203명 / 남포 3회: 7명 / 자강도 만포 1회: 2명
2003	21	363명	평양 19회: 356명 / 남포 2회: 7명
2004	26	168명	평양 18회: 136명 / 남포 4회: 15명 / 기타지역 4회: 17명
2005	64	972명	평양 37회: 811명 / 신의주(룡천) 2회: 18명 / 개성 17회: 130명 / 남포 6회: 13명
2006	72	704명	평양 60회: 647명 / 신의주2회: 2명 / 개성 8회: 48명 / 금강산 2회: 7명
2007	66	2,962명	평양 38회: 471명 / 신의주3회: 3명 / 개성 24회: 2,488명
2008	49	618명	평양 13회: 217명 / 남포 2회: 12명 / 개성 22회: 377명 / 금강산 1회: 1명 / 신의주 4회: 4명 / 함북 온성 7회: 7명
합계	370	6,217명	평양 187회: 2,518명 / 남포 34회: 101명 / 신의주 13회: 43명 / 개성 69회: 555명 / 금강산 3회: 8명 / 기타지역 13회: 29명

물자지원 현황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9,027,020
2002	2,018,750	109,053	392,885	522,440	7,20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289,88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939,620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9,558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합계	34,775,798	15,785,767	23,569,334	2,249,541	80,612,281

“평화와 희망을 위한 발걸음”

0104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2008 북한 신년사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1월

0201 2월 상임위원회  
홍보편집위원회 워크숍  
0204 <국민합> 정기총회  
(부회장단제로 선출)  
0209 볼고그라드 설날 행사  
200명 참가

0112 볼고그라드 농업연수 초청  
고려인 우리문화 체험  
0115 1월 상임위원회  
0118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인수위의 대북 정책 논의,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차기정부의 통일부 폐지방침에  
대한 <국민합> 긴급기자회견  
참여

0121 북한 의약품 생산지원사업  
백서 발간 위한 제차 간담회  
0123-0202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기술진 5명 방북



0123 남포 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  
0127 볼고그라드 사설농업연수  
고려인 6명 출국  
0128-30 AVP 전문훈련가 양성  
워크숍 공동주최  
0130 경기도 대표단 13명 개성 방문

2월

0220 경기도 대표단 14명 개성방문  
0220~0223 남포산원 1차 기술진  
6명 방북  
0221 제60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0222 볼고그라드 사설영농 1차 교  
육단 2명 출국  
0223~0227 경기도 당곡리 농업  
기술진 10명 방북  
0227 인재양성센터 운영위원회  
0227~0301 대구대 대표단/직접  
지원 기술진 8명  
방북  
0228 사무총장 이취임식 개최



0214 <겨레의 숲> 정기총회  
강남군 당곡리진료소  
지원사업 간담회  
0215 평화활동가 신념모임  
0216 볼고그라드 사설영농단지  
조성 위한 사설 물자 지원

3월

0303 농업지원사업 1차 사례발표회  
0304 볼고그라드 사설농업 교육단  
1차 사설농업 세미나 개최



0321 보건의료지원사업 1차 사례발  
표회  
0321-0325 개풍양묘장 2차 기술진  
15명 개성방문  
0328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  
0331-0405 개풍양묘장 3차 기술진  
16명 개성방문  
0331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운영  
위원회

0311 내부 정책집담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민족>의 과제』  
0312-0314 개풍양묘장 1차 기술진  
15명 개성방문  
0318 평화나눔센터 평화연구자 포럼  
0319 농업지원사업 2차 사례발표회

4월

0401 정성제약 지원사업 협의차  
4명 개성방문  
0402 볼고그라드 사설영농 2차  
교육팀 2명 출국  
0404 회원 초청 뮤지컬 '해릿'  
관람



0405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물  
자(시멘트) 지원  
0406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물자 지원  
-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물  
자 지원  
0407 농업분야 지원사업 3차 사례  
발표회

0412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물자(트럭) 지원  
0414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2차 사례발표회  
0415 <국민합> 상임운영위원  
통일부장관 오찬  
- 33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북한경제의 탈러화와 주민들의  
외화 의존 실태』  
0417-0419 적십자병원 기술진 5명  
방북  
0417 북한 영유아/임산부등기 자선  
콘서트 '도담도담' 개최

5월

0422 평북 룡천군/신의주/영주군  
취약계층시설 급식자재 지원  
0423-0426 남포산원 기술진 6명  
방북  
0427 볼고그라드 사설영농 교육팀  
2차 사설농업 세미나  
0428 조지 레이키(George Lakey)  
초청 비폭력직접행동 강연회  
0427-0503 비폭력 직접행동 전문  
훈련가 양성 국제워크숍  
0430-0502 개풍양묘장 4차 기술진  
15명 방문

0513 개성 개풍양묘장 준공식 및  
공동 나무심기행사 개최(170  
명 참가)



0515-0516 말라리아 공동방제 협  
의차 10명 개성 방문  
0516 정성 의학종합센터 개보수  
물자(페인트) 지원  
0519 볼고그라드 제7회 고려인축제  
준비회의

0506 한반도푸른숲가꾸기 국민운동  
선포식  
- 보건의료지원사업 4차 사례  
발표회  
0507-0510 정성제약 기술진 6명  
방북  
0508 <대북지원민간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통일부)  
0509 아동급식지원사업 후원자 모임

0520 평화연구포럼 개최  
0521 Stuart Thorson 교수와의  
간담회 참석  
- 농업분야지원사업 4차 사례발  
표회  
0523 대북 긴급 식량지원 모금캠페  
인 시작



- 2008년 평화활동가 대회 준비  
위원회 회의  
0524 AVP 후속 워크숍 진행  
0529 개풍양묘장 물자 지원  
0529-0604 볼고그라드 고려인 3명  
입국, 사설농업 현장탐방

6월

0602 대북 식량지원 축구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  
-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용  
2차 시멘트 지원  
0603 북한이슈와 정책포럼 제4차  
모임  
0609 인재양성센터 1기 교육 개강  
식(교육생 30명)



0625-0628 적십자병원 이비/두경  
부 수술장 기술진 6명  
방북



- 0701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초차류 협의차 5명  
개성 방문  
- 말라리아공동방역 2차  
방역약품 지원/대표단  
15명 개성 방문
- 0704 교육지원사업 협의  
차 8명 개성 방문
- 0709 2차 북한이슈와 정책  
포럼 모임

- 0723 개성 개풍양묘장 관련 실무단  
7명 개성 방문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  
공장' 사료 지원(인천-남포)  
- 개성 농업지원사업 관련  
경기도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 말라리아공동방역 3차 방역  
약품 지원/대표단 9명 개성  
방문

- 0729-0730 옥수수 85톤 지원  
0729 함경북도 온성군 급식자재  
및 학용품 지원



- 0729-0803 5회 재외동포 NGO대회  
참가(러시아 사할린)  
0730-0802 농업 지원사업(전북)  
대표단 9명 방북



- 0813 개성 농업지원사업  
경기도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 0816-0820 보건의료 기술  
진 10명 방북

8월

7월

- 0806 교육지원사업 개보수용 지붕  
재 지원

- 0809-0816 보건의료 기술진 7명  
방북



- 0820 영유아지원사업 관련  
개성 방문
- 0821 제3차 북한이슈와 정책  
포럼 모임
- 0822 함경북도 온성군 급식자  
재 및 학용품 지원
- 0823-0827 교육지원사업 대  
표단 7명 방북



- 0827 평북 신의주/삭주군/염  
주군/동천/동림 취약계  
층시설 급식자재 지원  
- 평양 순안종합징에 지원  
하는 돼지사료 30톤 지원
- 0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협약식



- 0920-0923 <정성의학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조선적십자병원 이비  
인후과/두경부 외과  
수술장 준공식> 개최  
(120명 직항로 방북)



- 0922 평양 채소 육묘단지 온실 지원  
(인천-남포)

- 0930 남부러시아 농업 세미나

- 0901 인재양성센터 2차 교육개강  
식(교육생 30명)

- 0904 평화나눔센터 '학술토론회'남  
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  
할과 진로 모색



- 0908 평북 신의주/룡천군/삭주군  
동림군/염주군 급식자재,  
생필품, 의약품 지원

9월

- 0912 직항로 방북일정 협의  
차 5명 개성 방문  
- 개성시 신규 사업 협의  
차 대표단 10명 개성  
방문

10월

- 1002 평화나눔센터 라운드  
테이블 '남한 시민사회  
와 남북관계'

- 1004-1007 영유아지원사업  
대표단 방북

- 1007 36차 평화나눔센터 정  
책포럼 '미국대선의 향  
방과 남북관계 전망'

- 1008 함북 온성군 취약계층  
시설 급식자재, 생필  
품, 학용품 지원

- 1010-1017 7회 볼고그 라드  
고려인 축제(한국  
참가자 21명)



- 1013 개성 개풍양묘장 기술진  
3명 개성 방문

- 1017 개성 개풍양묘장 실무단  
8명 개성 방문

11월

- 1024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지원  
- 남포산원 건설물자 지원
- 1030-1101 평화활동가 대회  
참가(중국 과산)



- 1031 평남 남포시, 대안군  
영유아 영양식 지원  
- 개성 개풍양묘장 트럭  
부품/소모품 지원  
- 평양 순안 종합징에  
사료 60톤 지원

- 1103 부산경남본부 심포지엄  
'북한 지역 햇빛발전소  
건설 타당성 검토'

- 1110 남포시, 대안군 영양지원사업  
배급차량 2대 지원  
- 37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딱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  
어야 하나'

- 1114-1115 사무처 워크숍(강화도)  
1114 남포시, 대안군 영양지원사업  
미역죽 32톤 지원  
- 평양 금성중학교 신축공사  
자재 지원

- 1115 보건의료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1118 함북 온성군 취약계층시설 급  
식자재, 생필품, 의약품 지원  
- 개풍양묘장 물자 지원 (개성  
육로)

- 1119-1122 보건의료 기술진 8명 방북

12월

- 1208 개성시 개풍양묘장 운영  
물자 지원
- 1211 함북 온성군 취약계층시설  
생필품 지원
- 1212 정성의학종합센터 공장/품  
질관리실 물자 지원
- 1214 러시아 볼고그라드 농업기  
술진 3명 현지 방문



- 1125 개성 개풍양묘장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 1126 경기도 '북한동포학교동기  
민족화해교육물결 대행진'  
1차 발대식



- 1128 적십자병원 의약품 40여종  
지원  
- 영유아지원사업 영양식 원자  
재 38톤 지원  
- 리면 1,500박스 지원

- 1225 함북 온성군 취약계층시설  
급식자재 지원

- 1228 영유아지원사업 영양식 원  
자재 35톤 지원  
- 정성의학종합센터 수액약품  
공정 유지 용품 지원  
- 돼지공장(양돈장) 수의약품  
지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  
그 길에서 희망을 봅니다”

제약공장  
지원사업



긴급구호사업  
교육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광주전남  
부산경남  
지부사업



농업·축산  
지원사업



지자체  
공동사업



병원현대화  
사업



IT 교육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정책연구  
사업



고려인  
지원사업



## “영양가득, 복녁동포들의 행복한 밥상만들기”

농업·축산지원사업은 단순 식량지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한동포가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농업협력사업은 2003년 북한의 3개지역(사동구역, 평남 대동군, 황남 신전군)에 농기계수리소를 건설하고, 평안남도 강서군에 ‘우리민족·급성·동양 농기계공장’을 설립하여 국산 농기계 지원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남측의 농법을 북한 현지에 적용한 비농사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과 2007년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200ha의 비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농사와 더불어 채소 공동재배와 농업기반조성, 공공시설, 주택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단순한 농업협력을 넘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협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대리 양돈장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 협동농장 채소 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

북한 주민의 개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45kg 정도인데 이는 FAO(국제식량 농업기구) 권장사항인 73kg에 비해 훨씬 못미칩니다. 남한주민의 소비량은 150kg정도입니다. 채소섭취가 부족하면 영양불균형이 오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북한 농촌에 비닐하우스(온실)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 특히 아이들 및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고자 평양 채소 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온실)를 이용한 채소 재배는 남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채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소재배 방식입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농촌지역에 사업지를 마련하고 지난 2008년 9월 제1차로 채소육묘장 1동(600평)과 단동 온실 1개동(150평)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말에는 단동온실 9개동(1,350평)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남측 기술진이 방문하여 본격적인 채소재배를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무기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채소재배단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지원 사업

남포·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은 2007년 10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주민과 탁아소, 유치원 등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장에서 발생된 축분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농업의 선순환구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육수량 변화>

- 2007.10. 돼지 254두 지원
- 2008.02. 193두 주민에게 제공
- 2008.07. 359두 사육중(어미돼지 50, 씨돼지 4마리 포함)

### <현장 방문 기술교육>

횟수	교육내용	남측 인원	북측 인원
2008년 7월	사료급여체계, 자돈관리, 사양관리방법	8명	10명

## 향후 계획

양돈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료공급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2008년, 한달에 약 20톤씩 총 250톤의 사료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도 사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대대리 양돈장이 자체적으로 사료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측에서 생산된 고기와 채소를 판매하여 자체적인 사료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점차 남측의 사료지원 의존도를 낮춰 2012년, 전량 자체 조달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대리 양돈장  
대대리 양돈장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물자



## “지자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의 활로를 열어갑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사업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와 남북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와는 2004년부터 농업, 보건, 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양묘장 조성 남북실무진 협의사업진행 경과〉

방문 횟수	협의내용	남측 인원	북측 인원
총 10회	관리동 건설, 온실양묘 관리, 노지양묘 관리, 종자심기 기술협력, 농기계수리, 묘목관리 기술협의 등	115명	140명

### 〈200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남북 실무진 협력사업진행 경과〉

방문 횟수	협의내용	남측 인원	북측 인원
총 5회	공동 방제사업방식협의, 방역기계, 방역약품 전달 및 기술협의	46명	23명

개풍양묘장 준공식 기념식수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 개성시 개풍양묘장 조성을 통한 나무심기 사업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개성지역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5ha 노지에는 밤 호두 스토브잣나무가 싹을 틔워 자라고 있고 상수리나무와 물푸레나무는 남측에서 1년생 묘목을 가져다 심었습니다. 1000㎡(300평)의 온실에서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산에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건물로 관리동과 창고도 건립하고 종자보관을 위해 저온저장고도 세웠습니다. 지난 5월13일에는 경기도 도지사를 포함한 남측 대표단 170여명이 방문하여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양묘전문가를 포함한 남측의 실무자들은 양묘장 현장을 방문하여 양묘장 지배인을 비롯한 북측의 양묘공들과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양묘장을 방문한 실무자는 총 10회에 걸쳐 115명이며 북측은 총 1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북측의 양묘공들과 남측의 전문가들은 5년후 연간 묘목생산 150만본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의 경기도, 인천, 강원도 북부지역과 북한의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입니다. 2007년의 경우, 남한에서만 180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고 북한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집중 발생하고 있어 남북공동방역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 2월 개성에서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경기도청 보건분야 전문가와 북측의 의과대학원 기생충연구소 말라리아 담당책임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우선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공동방역을 하기로 하고 남측에서는 방역약품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방역차량 7대, 분무기 100대, 살충제5톤, 모기유충구제약 1톤, 실내용 살충제 95,000개, 조기진단 세트 5,00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추진 결과 2008년 경기도내 말라리아 환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5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 3월 11일부터 평양에서 남과 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물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에 전달하였으며 방역협의를 위해 남측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진들은 총 5회에 걸쳐 개성을 방문하여 북측의 방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양묘장 묘목을 살펴보는 남북기술진들  
말라리아 방역 약품 지원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유문등을 살펴보는 남측기술진

## “기초의약품 생산에서 약품의 품질관리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의약품 공급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제약공장에서 다양한 약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보통 각급 병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규격에 따라 20~30종의 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측은 이처럼 열악한 기초의약품 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액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북한의 기초의약품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액약품 생산공장을 평양에 건설키로 했습니다. 평양의 락랑구역에 위치한 정성의학종합센터에 지어진 수액약품공장은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약공장 지원사업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 〈제약공장 지원사업 경과〉

- 2003.03. 정성제약연구소와 수액약품공장 건설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05.06. 수액약품공장 준공
- 2006.02. 알약공장 준공 · 정성제약연구소 정성의학종합센터로 승격
- 2008.09. 품질관리실 준공

정성의학종합센터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교육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정성의학종합센터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08년 지원사업의 핵심은 품질관리실 설치였습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에 지어진 수액약품공장과 알약약품공장은 약품생산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P 규정이 보다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약품의 품질관리를 스스로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측에서는 북한 최초로 GMP 규정을 적용한 종합적인 제약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품질관리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2007년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된 품질관리실 설치 작업은 2008년 품질분석기기 지원과 사용법 교육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석기기 지원과 사용법 교육을 위해 총 10회의 기술진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9월에는 129명의 대표단이 방문, 준공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또 정성 구성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 남쪽의 제약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기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성측에서는 원활한 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해 약 15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용	인원
0123-0202	품질관리실 공사 기술진 방북	5
0401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4
0507-0510	품질관리실 기술진 방북	6
0701	품질관리실 초차류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5
0809-0813	품질관리실 기술진 방북	7
0912	품질관리실 준공식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4
0917-0920	준공식 준비 선발대 방북	2
0920-0923	〈품질관리실 및 적십자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방북	129
1119-1122	정성 품질관리실 모니터링 방북	6

### 향후 계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후 정성의학종합센터 구성원에 대한 기술 교육과 동물실험실 설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물실험실은 수액약품공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 시설로, 남쪽의 제약 전문가들도 현 단계 정성에서 몹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정성에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북측 제약 전문가들의 기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성제약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  
분석기기에 대한 교육 진행  
알약공장 내부  
수액공장 내부

## “남과 북의 아픔까지 치료하는 병원 만들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병원현대화 사업은 평양에 위치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에 위치한 적십자병원은 총 8만평방미터의 부지에 병상 1,000개, 하루 외래환자가 2,000명에 이르는 북한 최대의 종합병원입니다. 북측은 2003년 적십자병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4년 1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병원현대화사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또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의 현대화사업도 진행했으며, 북측의 모든 의학자들이 가입해 있는 조선의학협회 주최로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병원현대화사업 경과〉

- 2004.01.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05.10. 종합수술장 준공
- 2006.12. 신경외과/호흡기병동부, 화학치료과 준공
- 2007.11.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현대화사업 진행
- 2008.09.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수술실비 교육



준공된 이비·두경부 수술장을 둘러보는 남북 대표단



이비·두경부 수술장현관을 걸고 내시경 장비를 설정하는 남북 기술진 마취기를 살펴보는 북측 의공기사를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 내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의 여러 병동 중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전문병원의 수술장 현대화를 위해 상하수 배관 작업과 전기 공사, 수술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으며 수술대와 마취기, 기본적인 의료 기기와 수술 도구, 소모품 등이 제공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기기 설치, 사용법 교육 등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총 10회, 183명의 기술진과 대표단 방문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술장 개보수를 마무리한 9월에는 정성의화종합센터 품질관리실과 더불어 수술장 준공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현대화사업을 계기로 북한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의 후원으로 우선 귀걸이형 및 귓속형 보청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인공와우 시술과 청각 장애인들의 언어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적십자병원은 북한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북측의 보건의료 현실과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적십자병원의 임상검사소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현대화된 구강수술장에서 남과 북의 치과 의사들이 북측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철실과 교정실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지원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하루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희망입니다. 현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한의 2,600여명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1,000명당 55명이 5세 이전 사망, 42명이 1세 이전에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엔아동 기금(UNICEF) 2008세계아동실태보고서> 또 5세 이하 아동 23% 저체중, 37%가 발육지체로 영양실조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북한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변경지역엔 배급이나 외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곳, 외부 식량지원이 절실한 곳 취약계층에게 2001년 7월부터 영양개선, 기초보건,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분단된 한반도에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취약계층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평양만경대구역과 사리원시, 정주시 유치원과 탁아소 4만명의 어린이에게 약 4억원 가량의 급식 지원, 2002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남포, 해산, 회령 등의 어린이에게 약 18억 상당의 급식과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2005년 8월부터 2004년 4월에 발생한 평안북도 룡천폭발사건 지원을 계기로 평안북도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 6곳, 1,500여명과 결연하여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는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2곳, 1,000여명과 결연하여 아이들에게 급식, 생필품,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국수, 빵, 우유 등을 중국 심양과 연변에서 구입, 중국 도문-북한 온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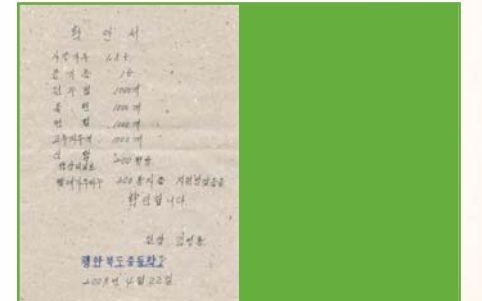
2008년 취약계층지원사업은 9개 시설, 총 11차례 6,700만원 상당의 분유, 국수, 우유, 콩기름, 설탕 등 급식과 비누, 담요, 옷 등 생필품,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시설 및 수혜자

지역	시설명	현황	수혜자수	비고
평안북도	룡천군육아원	1~4세	420명	고아원
	신의주육아원	1~4세	220명	고아원
	신의주애육원	5~7세	130명	고아원
	동림중등학교	7~16세	470명	고아원
	삭주군이부모학원	7~16세	123명	부모 양육 힘든 아동
	염주군양생원	-	120명	부양자 없는 장애인
함경북도	온성읍유치원	5~7세	712명	-
	남양로동지구유치원	5~7세	396명	-

## 향후 계획

2009년에는 북한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변경지역 아동의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자강도 회천시의 육아원, 애육원,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기존의 급식,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함경북도 온성읍 유치원  
함경북도 남양로동지구 유치원  
각 아동 시설에 지원한 생필품  
물품 분배확인서

## “북한 전문인력 교육의 모범을 만들어갑니다”

2006년 5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산하에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북측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북측 인력들은 북한의 주요 기업 및 교육기관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 최신 이론 및 기술 전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차 교육: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 일시 : 2008년 6월9일~8월15일  
 ◎ 인원 : 총30명  
 ◎ 강의 : (주)MDS Technology 등



**2차 교육: 네트워크&자바 전문가 과정**  
 ◎ 일시 : 2008년 9월1일~12월19일  
 ◎ 인원 : 총30명  
 ◎ 강의 : 광운대, 한신대, (주)Nextree Soft 등

2008년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차 교육은 임베디드 SW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및 검증에 관한 교육으로 임베디드는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인 PMP, MP3 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에서 임베디드 기술 습득이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향후 기술축적을 통한 인력 아웃 소싱 및 해외 개발 수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차 교육은 네트워크 및 자바강습과정으로 네트워크 구축, 클러스터링, 웹 어플리케이션(자바) 과정으로 구성되어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IT 및 그 융합기술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상용화에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국제 표준 및 남한의 기술을 접목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경험 및 남북 교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2008년 교육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보다 다양한 IT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 결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에는 국제 IT 자격증인 시스코 과정을 운영하여 북측 개발자들의 실력 검증 및 범용 기술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베디드 수업

## 긴급구호사업 “먹지 못해 고통받는 동포가 더 이상 없기를...”

2007년 40년 만에 찾아온 북한의 대규모 수재피해는 2008년 대규모 식량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식량난은 대규모 아사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추풍경을 최대 고비로 판단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5월 23일부터 긴급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천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약 1억원 상당의 모금(물품 포함)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들의 나눔과 정성을 총 3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긴급 대북 식량지원 내역

차수	일자	지원경로	지원물자
1차	0616	단동→신의주	이동급식용 밀가루 25톤
2차	0709	금강산	대한성공회 기탁 쌀 25톤
3차	0729	단동→신의주	옥수수 85톤

## 교육지원사업 “북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경기도 교육계와 함께 평양의 금성제1중학교에 대한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7월 4일 개성에서 사업 협의서를 체결한 이래 교실 철판, 창문개보수 물자 등을 지원하였고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금성제1중학교를 방문하여 개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모금캠페인을 확대하여 여타 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률지원사업 “우리동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설 법률지원센터인 '우리동포(소장 전성 변호사)는 2007년 3월 개소후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차 전화 접수 후 마포 소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변호인과 직접 면담 및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구조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상담전화: 02-715-8668)

##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강화를 모색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시민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지원을 위한 정책변화 및 NGO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토론회 및 라운드테이블 내용〉

기간	일정	내용
정책포럼	0415	북한경제의 탈리화와 주민들의 외화외존 실태
	0513	사회주의 경제에서 인민들의 생존전략 : 1990년 이후 쿠바와 북한의 사례
	0610	북한 협동농장 운영과 농민 사경제의 실태
	1007	미국대선의 향방과 남북관계 전망
	1110	꼭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	0104	2008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
	0118	인수위의 대북정책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0904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 역할과 진로모색
라운드테이블	1002	남한 시민사회와 남북관계



정책토론회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 대북지원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형성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책포럼, 토론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9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농업축산과 보건의료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약 15개 단체들과 약 10여 차례의 사례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 국제연대 사업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여러 주한 대사관과 국내 대북지원단체와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고 국제사회와의 면담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우리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활동과 입장을 알리고자 UNOCHA에서 운영하는 Reliefweb에 우리의 보건의료, 농업축산 및 급식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 평화연대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 평화단체들과 공동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의 평화운동을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의 전략과 전술을 배워보고 비폭력 직접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직접교육 워크숍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평화연구자와 평화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한국의 평화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구포럼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 진행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 40여개 평화 단체 60여명이 참여한 평화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2008 한국 평화활동가대회 정책토론회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 역할과 진로모색, 정책포럼 「꼭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북한채널 및 길라잡이

북한채널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지속과 변화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검토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총 9회 기획칼럼을 북한채널의 '이슈&오피니언'을 통해 뉴스레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라잡이를 통해 대북지원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 관련 자료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2005년부터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2008년에는 '북한개발지원-국제 NGO의 개발지원 이론과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2009년 1월 통일연구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수준에서 2009년에는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진로를 모색하여 남북화해협력의 큰 물줄기를 더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및 해외 NGO들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도 활발히 펼칠 것입니다.

## “볼가강을 따라 흐르는 고려인의 삶과 역사는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부 러시아 볼고그라드에는 약 3만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들의 유랑 역사는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자민족 중심 정책과 타민족 차별정책으로 인해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이들에 대한 현지 조사와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고려인들의 안정적 생활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7회 고려인축제에서 손수 김치를 담는 참가자들

### 2008년 사업 내용 및 성과

#### 제7회 고려인축제

10월 7일 진행된 고려인축제는 '김치'를 테마로 한 음식문화축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치담그기 행사, 실내 운동회,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축제에는 한국 방문단 21명을 비롯하여 현지 고려인, 타민족 대표, 주정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글·문화학교

볼고그라드와 볼스키 한글학교 두 곳에서 정기적으로 한글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초청 장학생 및 단기 모국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국과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정부, 타민족, 라스토프 등 각종 민족, 문화, 한국어 문화축제에 참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농업지원사업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솔로두쉬노에 비닐하우스 시설 및 육묘장 등으로 구성된 12ha의 농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닐하우스 자재를 지원했고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업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7명의 고려인 연수생들이 50일간 한국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러시아 농업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농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농업지원사업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 생활·의료사업

독거노인 및 생활 곤란자들을 위한 생활·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려인 밀집 농촌마을에 한방진료소를 운영하여 침, 뜸 등 한방치료를 제공하며 필요시 입원, 방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도서·유학생 지원

고려인들에게 국내에서 기증받은 한글·역사관련 도서를 지원하였고 고려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국방문단 신청, 정부 초청 장학생, CIS지역 장학생 신청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유학을 주선하여 현재 2명의 학생이 전남대학교와 신라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2009년에는 현지 활동의 자활적 운영의 안정화와 시설영농단지의 확대,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글·문화교육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소외되어있는 고려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모금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볼고그라드 한글교실  
러시아 농업지원 관련 세미나  
볼고그라드 현지에서의 농업 강연  
고려인 농업연수생들의 현장 연수

## “북녘어린이 교육지원사업, 남녘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2008년 어려웠던 남북 관계 속에서도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남북의 화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임원진을 새롭게 꾸리고 사무국의 실무진을 보강하여 보다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 광주지역 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통일연수는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지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총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특구 답사 및 통일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북의 하나됨과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금강산 지구 온정리 남북의사 협진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진행한 본 사업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남북의사 협진은 금강산 온정리의 온정인민병원에서 진행됐으며 북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각 분과별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 북녘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전개

새 학기에 의미 없이 버려지는 교과서를 모아 북녘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해 재활용하는 이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600여개 학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월과 7월에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11월에는 고등학교, 12월에는 중학교들이 북한 교육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하였습니다.

헌교과서모으기에 참여한 어린이들  
금강산 통일연수 참가자들  
북녘 학용품보내기 캠페인

### 향후 계획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역의 주도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단체로써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변경지역 영유아 지원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08년 진행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대북지원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의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제 북한에도 햇빛발전소가 건립됩니다”

2007년 11월 결성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북한어린이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대안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함경북도 회령 어린이지원사업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변경지역 어린이지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변경 지역은 중앙에 비해 삶의 환경이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 시작되어 현재 남문 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김정숙 탁아소 등 어린이 시설에 매달 3,000달러 상당의 식품, 의류,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 인근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햇빛발전소는 500kw 급 발전소로 인근 6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을 북측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구성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8년 8월,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제 치하 초기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관련 단체 및 학계와 연계하여 기념사업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교 헌책 수거 재활용 사업

부산지역 각급 학교에서 임의로 버려지는 헌 책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모아 이 사업을 매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수익금 일부는 북녘 어린이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함경북도 탄광기계유치원  
북한어린이돕기 하루 찾담  
연해주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지출항목

농업협력사업비	2,153,827,739
보건의료사업비	3,756,248,722
아동급식지원사업비	63,717,603
간급구호지원사업비(식량)	49,686,241
인재양성센터사업비	483,364,616
기부물품지원사업비	3,548,387,857
기타지원사업비	2,593,241,895
평화나눔센터사업비	35,403,789
볼고그라드지원사업비	343,001,402
<b>TOTAL</b>	<b>13,026,879,864</b>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 명단은 2009년 3월 기준입니다.

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前 상지대학교 총장 /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 나눔과평화재단 이사장)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공동대표

고희선 ((주)농우바이오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외과 교수)  
김현수 (대한한외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  
영담 (불교방송 이사장 / 석왕사 주지)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이사장 /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일영 (아주대 의대 교수)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 범어사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천정배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운영위원장 이용선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복철 부장  
황재성 간사  
현지연 간사  
오형윤 간사  
리황균 간사  
윤남희 간사  
정유정 간사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사무국

김영삼 사무국장  
이재봉 부장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여 (부산 범어사 주지)

공동대표

원형은 (빛과 소금 교회 목사)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조기중 (조기중 치과원장)  
차상조 (로덴치과 원장)  
이향순 (여여선원 신도회 회장)  
주병호 (주식회사 강산 회장)

자문위원회

김재규 (사회적기업 에너지너투라 상임고문)  
최화웅 (부산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여창호 (부산 YMCA 이사장)  
이진석 (카피코리아 이사)  
서석홍 (부경대 교수)  
박찬성 (효성정보기술교육센터 대표)  
이승정 (장산 총일교회 목사)  
이상수 (레베산업 대표이사)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이사)  
안준노 (국회의원 정책특보)

김현철 (주식회사 다산 대표)

문화예술위원장 최정완

상공위원회위원장 하종근 (에서건설 대표이사)

상임이사 리인수

사무처

고운정 차장

김윤미 홍보실장

러시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부회장  
최울라 총무  
황슬라브 감사  
류정숙 한글학교 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피나시, 김제나 (솔로두사노지역 담당)  
설게나, 황비집 (레닌스크지역 담당)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배달부가  
되겠습니다.

대북지원 10여년의 길...  
이제 긴급구호를 넘어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정부나 소수 특정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동의와 참여로 가능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 후원안내

### 1. CMS(자동이체)후원

2.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휴대폰 후원 / 신용카드 후원

### 3.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국민	00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외환	028-22-05491-1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로번호 7641271

### 4. 해피빈, 싸이월드 후원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ksm7070.do>

싸이월드 <http://town.cyworld.com/ksmseoul>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www.ksm.or.kr](http://www.ksm.or.kr) / [ksmseoul@ksm.or.kr](mailto:ksmseoul@ksm.or.kr)

